

아! 좋은 세상



이규성의
현실에 산다

벌초하러 고향가는 길, 나와 아버지는 연례행사처럼 서해대교를 건넌다. 마침내 다리 위, 올해도 아버지는 말하신다. “참 좋은 세상이다. 차 타고 바다를 건너는 날을 살 줄이야.” 사실 이 말은 인천대교를 건널 때도 하신 적 있다. ‘좋은 세상이라니’ 내게도 그런가.

한식, 추석과 설 명절. 대개 아버지와 내가 서해대교를 건너는 때다. 그 외에도 고향 친지 등을 만나기 위해서도 다리를 건넌다. 서해대교 개통 이전 명절 때 10시간은 보통, 다리가 생기고는 평소 한시간이면 고향에 닿는다. 간혹 석양무렵 바닷길을 붉게 물들인 장엄함이란...

아버지와 이 다리를 건넌 이력은 벌써 20여년전째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전 아버지는 시골에서 분당으로, 나는 서울에서 곤지암으로 각각 주거를 옮겼다. 아버지는 환갑 한참 남은 나이에 신도시민이 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등졌고, 나는 산골로 살러 왔다. 그후 두어 해 지나고부터는 이렇게 귀향길을 동행하

며 ‘좋은 세상 타령’을 나누고 있다.

처음부터 다리를 건넌 건 아니다. 서해대교가 생기기전 한동안 삼교천방조제길로 고향엘 오갔다. 방조제길 이후 바다 위 다리가 생기고, 그 다리를 건너는 여정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지금 아산만 일원은 생산량, 물동량, 기업 및 창업수 등에서 울산을 육박할 정도로 번성, 풍경마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곳곳에 국가공단, 지방산단 등은 물론 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고 마을마다 공장이 늘어서 옛 모습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길을 헤멘 적도 여러번이다. 대개 자동차, 제철, 배터리, 전자, 에너지, 화학 등 여러 연관산업을 망라해 공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청년시절 아버지는 염전의 염부였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말리고, 햇빛에 구운 소금을 끌고, 다시 지게로 짊어지고 나와 창고에 부리고, 고된 노동과 피땀 어린, 징글맞은 그 바다다. 그런 당신에게는 감동이 라니. 하여튼 다리 하나로 아버지에게는 좋은 세상인지 몰라도 내게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속으로 되뇌인다. ‘아버지와 나는 왜 다른 세상에 함께 사는건가요?’.

올해도 벌초하러 가는 길, 서해대교를 건너며 아버지는 또 똑같은 감격을 토로하

셨다. 그리고는 10년 후, 20년 후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떨 것 같냐고 물었다. 한동안 멍했다. 아버지는 또 “이 다리, 우리 당진 사람이 났다”고 하신다. 다리가 완공돼서 고향사람들을 초대, 잔치도 했단다. 진짜 인지, 지어낸 말인지. 어쨌든 당진 사람이 20리 바닷길에 다리를 났다는 전설 하나가 지어진 거, 생길만도 하긴 하다. 아니면 당진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그걸로도 감격해하는 아버지 모습도 나쁘진 않으니.

총연장 7310m, 서해대교는 물동량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부자의 한 세월도 너끈히 건너주고, 이어주고 있다고나 할까. “아버지. 이 다리는유. 엄청난 지진이 와도 끄떡없고유. 태풍이 와도 미동도 없대유.” 아버지의 감격을 더해주느라 겨우 맞장구친 말이다. 나의 어설픈 리액션에 ‘그러이~’하고 놀라시는 모습도 여전하다.

나도 내 아들과 서해대교를 오가게 될 거다. 그때 무었으로 나는 ‘좋은 세상’ 타령을 하게 될지, 아무튼 나는 서해대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다리 하나로 아버지에게는 좋은 세상이니 나도 그렇다고 하자. 다만 더 오래 아버지와 여길 함께 건너다니고 싶다.

/peace@metroseoul.co.kr

대법원장 후보자님,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을 대표하는 인사이기에 높은 도덕성과, 누구보다 엄격한 자질이 필요하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과 논란이 많다.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로펌 학부생 인턴 ‘아빠찬스’ 의혹, 자녀 해외 재산 누락 의혹, 성범죄자 감형 논란, 배우자 증여세 회피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에게 치명타는 재산 부실 신고 논란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과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총 10억원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위반 사항으로, 공무원 은 해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비상장주식을 소유해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왔음에도 재산 신고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 일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 후보자의 10억원대 비상장주식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의 부정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비상장주

식은 예전부터 신고 대상이었고 2020년에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액 가액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후보자도 이를 인식한 듯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 신고 누락을 집중 질의하면서 “사퇴할 생각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웃음을 지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 업무하면서 법과 원칙 따라 생활했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행동에 ‘법과 원칙’을 떠올릴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pth7285@

오늘의 운세

9월 20일 (음 8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힘든 일을 처리. 48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니 말조심. 60년생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는 일마다 거칠 것이 없다. 72년생 여러 곳에서 이득을 얻으려 하니 욕심이 지나치다. 84년생 신용이 가장 큰 자산임을.

37년생 항상 태양은 떠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49년생 일이 미뤄져도 기다리면 해결. 61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73년생 들고 나는 시기가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85년생 베풀라 부자가 10년생 가기 어렵다.

38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5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 62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74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86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39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항상 신중. 51년생 용될 고기는 모이 철부터 안다는 교훈. 63년생 최소한 내가 모른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75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려라. 87년생 친구와의 여행이 건강을 좋게 한다.

40년생 너무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은 먼 곳의 일보다 더 모를 수 있다. 52년생 장래 발足を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하루. 64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 76년생 심재이니 투자는 좀 더 생각. 88년생 인생은 달걀로 바위 치는 결과.

41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53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65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주의. 7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89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량을 베풀라.

42년생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54년생 답답하지만 현상유지가 최선. 66년생 자녀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사랑을 줘라. 78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이 또한 좋다. 90년생 다툼이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43년생 변동이 있어도 앞만 보고 전진. 55년생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금물. 67년생 희망은 주여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79년생 공로와 허물이 반반이니 상대에게 신경질내지마라. 91년생 돈 자랑 하려거든 좀 베풀고 하라.

44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56년생 사치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허물도 튀어나오니 법. 68년생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라. 80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92년생 사색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45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57년생 예의 바른 행동은 어딜 가나 대접받게 한다. 69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다. 81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라. 93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46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8년생 현상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70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82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한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 94년생 친구의 투자요구는 손실로 이어짐.

47년생 삶은 달걀도 껍데기를 깨는 방법이 있다. 59년생 친구가 나를 곤경에 빠뜨린다. 71년생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붉은색 옷을 입어보라. 83년생 뽕방아소리 듣고 김치국 찾지 않도록. 95년생 해 저무는 강가에 서 있는 기분이라랄까.



김상회의四季 베품이 곧 기도

복은 증장되고 액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모진 일도 당하지 않고 험한 일도 만나지 않는 인생 누구나 그런 삶을 원할 것이다. 좋은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해도 상대적으로 인생의 풍파가 덜하다 뿐이지 근심걱정이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액운과 고통은 없고 재복과 건강이 충만한 삶을 희망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생은 고해다. 그래서인가, 삼국시대부터 불교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절에서도 이런 저런 명목의 기도들이 많지마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도 사머니즘 전통이었기에 지금도 무속적인 것과 기도 역시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서양의 종교가 전래된 것인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천주교만 봐도 이런 저런 명목의 기도가 많은 것을 보면 액운을 피하고 복을 구하고자 하는 피혹취질의 DNA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팔십이 다 되어가는 어느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자손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할머니는 자손들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가 자신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명이 늘어나 백이십세를 산다고 예측하는 시대지만 이미 칠십 후반을 넘여가는 나이라면 자신이 건강하게 노년을 잘 챙겨야 하는가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본다. 즉 내일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방점을 찍어야 하는 시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이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 된다고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어려움에 위로의 마음을 함께하며 베풀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간다면 이 역시 자손들을 위한 훌륭한 기도가 자 공덕이 된다고, 그 할머니께도 드렸던 말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7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8	9			
6							4
		7		6		3	
8			7		6		5
		6		9		4	
4			3		1		2
		3		8		6	
1							7
			5	4			

						5		8
		4			6	1	2	
	8	2			7		6	9
				7	2	6	3	
			3		5			
	6	1	8	4				
9	5		6			7	1	
	4	6	7			8		
7		3						

정답

6	8	2	7	1	9	8	9	2
2	8	9	2	8	9	7	6	1
1	7	9	2	8	6	8	9	2
2	9	8	1	9	8	6	2	7
8	2	7	8	6	2	9	1	9
9	6	1	9	7	2	2	8	8
8	1	8	9	9	7	2	2	6
7	2	6	8	2	1	9	8	9
9	9	2	6	2	8	1	7	8

9	6	7	8	2	9	8	1	2
8	9	8	1	6	2	9	7	2
2	1	2	7	8	9	8	9	6
9	2	2	6	7	8	1	9	8
1	8	6	9	9	8	2	2	7
7	8	9	2	2	1	9	6	8
6	9	8	2	9	7	2	8	1
2	2	1	9	8	6	7	8	9
8	7	9	8	1	2	6	2	9

과년도와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